

통합적 접근에 의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국악 교육적 적용 방안

박 주 만

목차

- I. 머리말
 - II.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이해
 - 1.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래
 - 2. 칠머리당 영등굿의 형식과 내용
 - 3.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특징
 - III.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통합적 국악교육 적용 방안
 - 1. 음악 활동 영역의 통합적 접근 방법
 - 2. 예술 영역의 통합적 접근 방법
 - 3. 타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 방법
 - IV. 맺음말
- 참고문헌
Abstract

I. 머리말

지난 2009년 9월 유네스코(UNESCO) 무형유산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확정하여 등재하였다. 이외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처용무 등이 함께 등록되었으며, 이미 지정된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8건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예술문화의 강국이 되었다. 특히 이번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1세기의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최근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는 특정 지식인과 전문가만이 이해하는 전유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문화는 특정 계층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일상으로의 커다란 의미와 가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문화유산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보존할 만한 심미적 가치가 있는 인류의 소중한 예술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근 음악 교육계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출발한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음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다른 문화에 대한 문화 예술적 이해에서 출발한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교육의 방향은 다른 음악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음악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 음악교육의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활동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칠머리당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으로 영등신에 대한 제주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 굿이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동해안 지역과 함께 무속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재에도 많은 무속음악이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는 섬이라는 자연적 환경이 그만큼 혹독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위협을 굿을 통해 벗어나기를 기원했고, 하나의 큰 민속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굿판에서는 온갖 신(神)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접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

렇게 발전된 칠머리당 영등굿 속에는 종교의례인 성격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원형적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체계이자 사상이며 우리의 소중한 민족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에 적용되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에 전승되는 음악의 활용을 강조한다.¹⁾ 특히 이는 각 지역 민족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화 음악교육의 강조를 의미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음악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음악문화에 대한 관심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예술의 근원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통에 대한 소중함과 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음악교육 측면에서도 음악과 생활과의 관계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인 칠머리당 영등굿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되어 지는 것이 효과적인가? 일반적으로 굿음악은 악·가·무(樂·歌·舞)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적 성격이 강하다. 음악을 중심으로 언어적 요소, 무용적 요소, 조형 예술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론 드라마적 요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굿음악의 교육적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굿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종합성과 예술성을 강조한 통합 교육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악수업에서의 통합 교육과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예컨대 음악 활동 영역을 통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유사한 계열의 교과목을 서로 묶거나 공통의 내용요소를 갖는 몇몇 과목을 통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음악과 타 교과목의 관련 내용을 추출해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는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학교 국악교육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통합적 접근방법(음악활동 영역, 예술 영역, 타 교과와의 통합 영역)을 탐색해보고, 실제적인 초등학교 국악수업의 지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래와 형식을 기초로 하여 제주 무악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고, 학교 국악교육에 활용 가능한 악곡 및 학습 내용을 추출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의 국악 교수-학습 방법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4-5쪽.

Ⅱ.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이해

1. 칠머리당 영등굿의 유래

제주도에는 삼무풍토(三無風土)라든지, 수놓음 풍습, 신구간 풍습 등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만물유신(萬物有信)의식이 높아서 무속적(巫俗的) 사회경향이 매우 강하다.²⁾ 제주의 무속신앙은 유교(儒敎)·불교(佛敎)·도교(道敎)의 삼교를 비롯해 그 밖의 정령신앙(精靈信仰, animism) 등의 복잡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얽혀 존재한다. 제주의 칠머리당 영등굿 또한 이러한 형태의 영등신(바람의 신)을 모시는 무속신앙의 하나이다.

제주도의 음력 2월은 바람 때문에 몹시 춥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영등이 들었다”고 하며, 바람의 신(風神)인 ‘영등 할망이 오는 달’, ‘영등이 드는 달’이라 하여 ‘영등달’이라 한다. 그리고 이 영등달에 부는 바람을 ‘영등바람’이라 하며, 바로 이 영등바람을 맞이하여 마을의 신당에서 벌이는 굿을 ‘영등굿’이라 한다. 그러므로 영등달에 부는 영등바람, 바로 그 영등바람을 몰고 제주를 찾아온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바람의 축제가 바로 ‘영등굿’이다.³⁾

제주도의 영등굿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8권 제주목 풍속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등굿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2월 초하루에 귀덕(歸德), 금령(金寧) 등지에서는 목간(木竿)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떼 모양을 말머리와 같게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躍馬戲, 제주의 영등굿에서 영등신을 치송할 때 하던 놀이를 말함)를 해서 신(神)을 즐겁게 했다. 보름이 되어야 끝내니 이를 연등(然燈)이라 한다. 이 달에는 승선(乘船)을 금한다.

위에 제시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조 이전부터 제주 어촌의 부락에서는 ‘연등’이 크게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영등신을 모심으로 풍어, 해상안전, 해녀 채취물 증식 등의 소망을 기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래에 영등굿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칠머리당 영등굿’이다. 칠머리당굿이란

2)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서울: 도서출판 예술, 1992), 21쪽.

3) 국립문화재연구소(이명진, 문무병),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서울: 민속원, 2008), 11쪽.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굿을 말한다. 여기서 본향당이란 마을 전체를 차지하여 수호하는 신을 모시는 장소인데, 건입동의 본향당을 칠머리당이라 일컫게 된 것은 그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칠머리당은 건입동의 동쪽, 제주항과 사라봉中间的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한편 영등신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전환기에 찾아오는 외래신으로, 서북 계절풍과 함께 마지막 꽃샘추위를 몰고 오는 풍신이며 농경신이다. 영등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세경 너분드르(육지와 밭)와 요왕(바다의 밭)에 씨를 뿌리고 간다. 그리고 영등신은 풍신, 농신, 해신으로 서북 계절풍이 부는 시기, 영등달 초하룻날 제주에 왔다가 15일 떠나는 외방신(外訪神)이다. 따라서 영등굿은 이 신이 오는 시기, 마지막 꽃추위를 몰고 오는 계절의 전환기에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이며, 풍농굿이라 할 수 있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룻날 영등신을 맞이하는 환영제를 하고, 14일날 영등신을 보내는 송별제를 한다.⁴⁾

2. 칠머리당 영등굿의 형식과 내용

칠머리당 영등굿의 제차(祭次)는 굿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무의(巫儀)는 다음과 같다.⁵⁾

첫 번째로 행해지는 제차는 ‘초감제’이다. 초감제는 굿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으로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용왕신(龍王神)과 선왕신에게 제를 올리는 사서를 청한다. 천지개벽, 일원성선의 발생, 산수, 국토의 형성, 국가의 발생 등 지리·역사적 현상의 발생을 차례로 노래한다. 한 단락의 노래가 끝나면 악기의 반주를 올리고 그에 맞춘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음 단락을 노래한다. 이 자연 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부분을 ‘베포친다’고 하고, 인문 현상의 발생 노래 부분을 ‘도업친다’라고 한다. 이후 행하여지는 소제차로는 날과 국섬김, 연유담음, 군문열입, 분무사뵈, 새도림, 신청괘의 과정이 있다.

두 번째 절차는 ‘본향뵈’이다. 이 과정은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을 청해 들이는 제사형식으로 노래를 하고 요란한 장단에 맞추어 도량춤을 춘다. 세부적인 절차는 베포도업침을 시작으로 날과 국 섬기, 연유 담음, 국문 열림, 오리정, 신청괘, 삼헌관 절 시킴, 자손들 소리 올림, 도산받아 분부사뵈, 석살림 등의 과정을 거친다.

4)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제주: 제주도, 1998), 168쪽.

5)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67-73쪽.

세 번째는 ‘요왕맞이’ 절차이다. 요왕맞이는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닦고 청하는 과정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신과 바다맡에 씨를 뿌려주고 떠나는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제장으로 맞아들여 기원하는 의례이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과정은 배포 도업침을 시작으로 날과 국 섬김, 연유 닦음, 군문열림, 요왕질 침, 신청괘, 나까사리 놀림, 방관침, 요왕문 열림, 지아뵈의 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 절차로 ‘씨드림(씨점)’이다. 씨드림이란 파종(播種)을 뜻하는데, 미역, 전복, 소라 등의 해녀 채취물의 씨앗을 바다에 뿌려 해산물이 많이 번식하도록 기원하는 제사의식이다. 씨점이 끝나면 노래를 부르며 굿에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신과 더불어 즐기는 의식을 갖는다.

다섯 번째로는 ‘마을도액막음(소만이 본풀이)’을 한다. 도액막음은 마을의 액을 막는 절차로 닭을 죽여서 던지며, 사람대신 닭을 잡아가도록 하는 절차이다.

여섯 번째로 ‘영감놀이’를 한다. 이 제사의식은 칠머리당 굿에만 있는 연희형태의 독특한 곳이다. ‘영감’은 일명 ‘참봉’, ‘야채’ 등이라 하는데 이는 모두 도깨비를 뜻하며, 인격화된 신령(神靈)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 절차는 ‘도진’이다. 도진은 모든 신(神)들을 돌려보내는 제사의식이다. 평복차림의 심방이 이 당곳에 모셔졌던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돌아가십사는 사설을 노래해 나가면 소무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복창해 가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이상으로 당곳의 절차는 끝이 난다.⁶⁾

다음 제시된 <표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칠머리당 영등굿의 주요 제사의례 절차와 특징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칠머리당굿의 제차형식

마당	제차의 내용
초감계	모든 신을 청하여 좌정시키고 기원하는 제차
본향뚝(초신맞이)	본향당신을 청해 마을의 무사를 빌면서 술을 드리는 제차
요왕맞이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닦고 청하는 제차
씨드림(씨점)	망태기를 들고 나온 심방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흉내 내면서, 미역, 전복, 소라의 씨를 뿌리고 그 흥풍을 점치는 제차
마을도액막음	마을의 액을 막고자 수탁을 던지고 집안의 운수와 잠수들을 위해 점을 치르는 제차
영감놀이	칠머리당 굿에만 있는 연희형태의 독특한 곳으로 영등신을 돌려보내는 제차
도진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제차

6) 칠머리당굿 보존회, “영등송별대제,” 『제23회 제주 칠머리당굿 공개 발표회』(제주: 칠머리당굿 보존회, 2003), 17쪽.

3.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특징

일반적으로 무속음악은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巫歌)와 무당이 추는 춤인 무무(巫舞) 그리고 반주음악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무가는 무속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사설(노랫말)과 선율(가락), 장단(리듬)으로 나눌 수 있다.

무가의 사설은 굿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무당의 성격과 신관(神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무가의 선율은 장절의 구분 없이 길게 이어지는 ‘통절형식’과 장절의 구분이 있고 후렴이 붙기도 하는 ‘장절형식’으로 구분된다.

이번 장에서는 제주 무악의 악기편성, 장단, 선율을 통해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악기편성의 특징

무속음악의 악기편성은 지역에 따른 큰 특징을 보인다. 서울·경기지역은 삼현육각(피리·대금·해금·장구·북)의 악기 외에 바라·방울·징·팽과리 등의 악기가 더 쓰이고, 황해·평안도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과 흡사하나 황해도 굿에서 구구방울이라는 악기 사용이 특징이다. 또한 경상도·강원도 지역의 굿에서는 대개 선율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팽과리·장구·징·바라 등의 타악기 중심의 악기를 사용한다.⁷⁾ 한편 제주 무악의 악기편성은 장구·대양(징)·연물북·설쇠·요령·바랑 등이 사용된다. 이중 설쇠·대양·북·장구가 기본 악기를 이루며, 이 악기를 제주에서는 ‘연물(演物)’이라고 부른다.

(1) 설쇠

설쇠는 제주도 굿에서만 쓰이는 무속악기이다. 놋으로 만든 그릇모양의 악기로 직경이 15cm이며, 깊이는 6cm가 된다. 전통악기인 팽과리와 유사한데, 팽과리는 끈을 잡고 연주하는 반면 설쇠는 쌀을 씻고 거를 때 쓰는 채 위에 놓고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의에 있어 설쇠만 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심방이 춤을 출 때 다른 악기와 함께 사용된다.

7) 권덕원·황병훈·송정희·박주만, 『국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9), 75쪽.

(2) 대양

놋으로 만든 둥글게 생긴 징이다. 직경은 32cm이며 깊이는 9cm 정도이다. 연주방법은 악기에 위에 있는 끈을 왼손으로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굽은 채를 가지고 쳐서 연주한다. 대양은 북과 설쇠와 함께 심방의 춤의 반주악기로 필수적인 악기이다. 시왕맞이의 방관침에서는 심방의 사자(死者)의 명복을 기원할 때 대양만을 연주하기도 한다.



<사진 1> 설쇠



<사진 2> 대양

(3) 연물북

연물북은 약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북이다. 일반적으로 바구니 위에 놓고 사용을 하며, 연주방법은 양손으로 주로 북의 한쪽 면을 치며 연주한다.

무의에서 북을 쓰는 기회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큰굿의 초감제나 각종 맞이굿 때 수심방의 무용 반주악기로 연주하는 것이고, 둘째는 작은 굿의 안은 제, 즉 심방의 춤이 없이 무가만을 부르면서 앉아서 집하는 무의의 경우, 무가의 반주악기로 쓰는 것이며, 셋째로는 장구와 북을 병용하는 경우인데, 큰굿의 청신의례인 오리정, 상계, 새도림, 석살림에 세우젯소리를 불러 신을 놀릴 때 등 리듬이 비교적 정연한 무가를 부르는 경우 그 반주 악기로 연주한다.⁸⁾

(4) 장구

장구는 국악에서 쓰이는 악기보다 직경이 작다. 연주는 심방이 앉아서 오른손에 대나 무로 만든 채를 잡고 연주하고, 왼손으로는 북면을 치며 연주한다. 연주방법은 일반 장구 연주법과 같지만, 다른 점은 채가 일반 장구채에 비하여 매우 가늘다는 것이다. 이러한

8)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0-41쪽.

장구는 무의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본풀이와 추물공연 때 심방이 제상을 향하여 앉아서 혼자 장구를 치면서 무기를 부른다.



<사진 3> 연물북



<사진 4> 장구

(5) 바람

놋으로 만든 접시 모양의 악기이며, 던져서 짐을 칠 때 사용하는 무구로도 사용된다. 배면 중심부에 끈이 붙어 있으며, 두 개가 한 조로 되어 양손에 하나씩 들고 연주한다. 이 악기는 불교의 영향에서 나온 것으로 불도맞이, 일원맞이, 석살림 등의 무의식 때도 사용된다.



<사진 5> 바람

2) 무악 장단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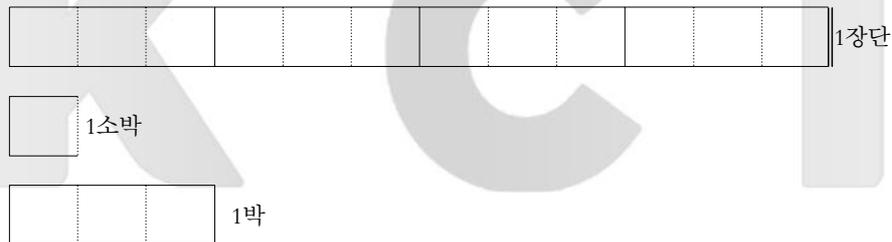
어느 지역의 무속음악이든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듬이다. 강약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복잡한 리듬형태의 분할이라든지 리듬은 무속음악을 성격을 나타내준다. 칠머리당굿에서도 리듬적 요소는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리듬은 매우 복잡하고 다채롭다. 때문에 칠머리당굿 의식에서 연주되는 연물놀이나 노래의 리듬을 채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본 절에서 제시되는 리듬은 전체 칠머리당굿에서 연행되는 장단 가운데 가장 중

심적이고 기본적인 리듬만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 지도하기에 용이한 리듬형과 장단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칠머리당굿의 박자 구조는 뚜렷한 형태를 이루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물놀이가 수반되는 모든 음악적인 요소는 고정 박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물놀이가 수반됨이 없는 심방이 목소리로만 가창하는 경우 혹은 요령이나 장구리듬을 치기는 하지만 가창을 주로 하여 연행하는 제차에서 나타나는 박자는 연물놀이를 수반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박자가 변형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리듬의 민요처럼 리듬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처리되어 박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다. 비록 가창만 전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박자적인 토대 위에서 조금씩 변형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칠머리당 영등굿의 모든 음악적 요소들은 무반주 말명(레치타치보)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규칙적인 박자를 토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⁹⁾ 한편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연주되는 장단은 3소박 4박 장단¹⁰⁾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악보 1> 3소박 4박 장단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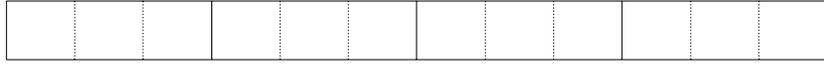


위에 제시된 구조를 가진 장단은 빠르기에 따라서 리듬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속음악에서 쓰이는 장단으로 굿거리, 자진모리, 중중모리와 같은 리듬구조와 동일하다.

9)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 32쪽.

10) 소박이란 박을 이루는 작은 단위이다. 예컨대 자진모리장단에서는 3개의 소박이 집합하여 여느박(리듬소)이 되고, 여느박이 2집합하여 대박(소리듬형)이 되고, 대박이 2집합하여 대대박(여느리듬형)이 된다. 이와 같이 3개의 소박이 모여 여느박이 되는 것을 3소박이라 하며, 자진모리장단, 굿거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세마치장단은 3소박으로 여느박을 이룬다. 이보형, “전통음악의 리듬 분석 방법론,” 『정신문화연구』 66 (1997), 103-107쪽.

<악보 2> 12/8 박자: 자진모리, 중중모리, 굿거리장단



칠머리당 영등굿 장단은 설쇠, 대양, 북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러한 악기들의 가장 많이 출현하는 악기별 기본 장단의 리듬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3>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기본 장단

북	○		○	○	○	○	○○	○	○	-○	○
	○○	○○	○○	○	-○	○	○		○	○	-○
설쇠	○		○		○	○		○	○		○
	○		○		○	○		○	○		○
대양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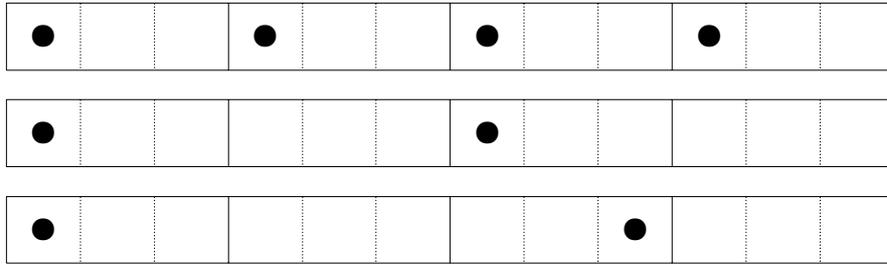
위에 제시된 기본 장단은 빠르기에 따라 다양한 리듬형으로 변형되고 사용된다. 이러한 장단의 특징은 대양 치기가 2박 단위로 첫 번째 박 첫 소박에 기준점을 연주하면, 설쇠가 그 다음으로 리듬의 기본 리듬꼴(♩ ♩)을 연주한다. 또한 연물북은 대양과 설쇠에 중심 리듬을 바탕으로 다양한 리듬 변이를 이루어 나간다. 이렇듯 칠머리당 영등굿의 반주악기 중 가장 다채롭고 중심이 되는 악기는 북으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단의 빠르기는 크게 느진석(♩=108-112), 중판(♩=112-118), 자진석(♩=164-172)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장단의 빠르기는 굿연희에 사용되는 춤사위와 큰 관련이 있다.¹¹⁾ 또한 칠머리당 영등굿 장단의 세(勢)는 3소박 4박 장단의 강약 구조에 따라 연주되

11) 김지수, “제주 칠머리당굿의 형식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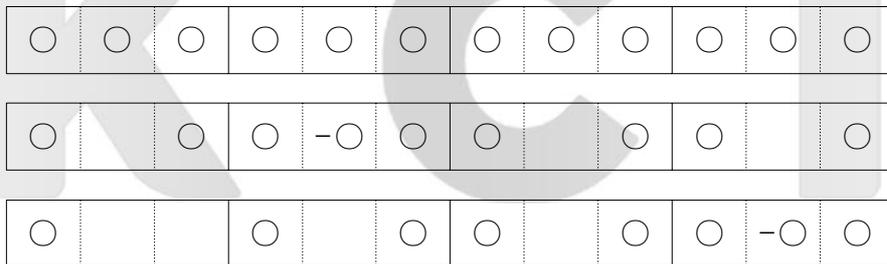
고,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보 4> 제주 칠머리당굿 장단 세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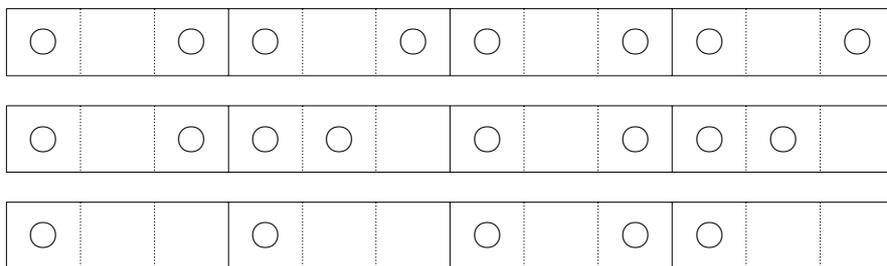


그럼,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연주되는 기본 장단의 변형 중 대표적인 유형을 악보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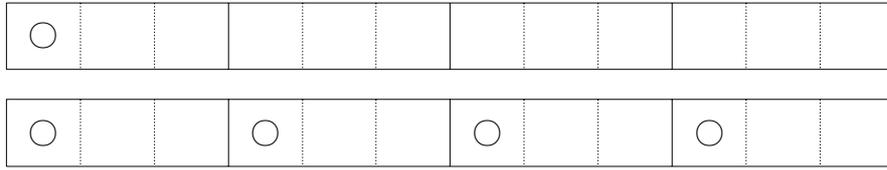
<악보 5> 북의 변형장단



<악보 6> 설쇠의 변형장단



<악보 7> 대양의 변형장단



한편 본풀이를 할 때의 장단 중에는 일반적인 민속악에서 사용되는 굿거리장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심방이 직접 노래를 부르며 장단을 쳤다.

<악보 8> 굿거리장단



3) 무악 선율의 특징

칠머리당 영등굿에 무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모두 타악기이다. 따라서 선율은 노래 가락에서만 나타난다.¹²⁾ 칠머리당 영등굿에 연주되는 무가 선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무가의 선율은 다른 지방의 무가와와는 달리 일정한 특징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개 제주 무가의 음계는 무반음 5음음계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가 가장 많다.¹³⁾ 이것은 경기민요 창부타령조와 유사한 음계의 구성이며, 주요 선율골격의 음 진행은 솔→도의 형태와 솔→라→도처럼 라를 거쳐서 진행하는 형태가 보인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선법의 무가를 부른다.

둘째, 가락선이 대체적으로 하행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아래 제시된 <악보 9>의 무가처럼 처음에 최고음으로 노래를 시작하여 최저음(중지음)으로 마치는 사선하행의 가락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12) 무가의 자료는 음반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no. 4: 제주 칠머리당굿” (국악춘추사, 서울음반, 2000)과 조영배, 『한국음악 제31집: 제주도 칠머리당굿』 (서울: 국립국악원, 2000)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분석하였다.

13) 조영배,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음악적 특징,” 『제주도 칠머리당굿』 한국음악 제31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0), 10-22쪽.

<악보 9> 안당 무가

아 신아 공 심은 절 어 지고
 남 의남 산 본이로 구 나
 팔 만 의 사 도 세 경 이요
 한 양 도 서 울 이요

셋째, 노래의 선율에 있어 앞소리와 뒷소리로 나누어 연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악에서의 메기고 받는 형식과 같다. 일례로 ‘요왕맞이’에서 부르는 서우젯 소리는 혼자서 부르는 ‘앞소리’와 여럿이 부르는 ‘뒷소리’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러한 선율은 A(앞소리)+B(뒷소리)·A'+B·A''+B...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악보 10> ‘요왕맞이’ 서우젯 소리 무가

(앞) 어 여 차 아 - - 뒤 - 여 - 허 - 허 - 차 - 서우젯 - 소 - 리 - 가 - 념 - 고 - 간 - 다 - -
 (뒷) 아 - 아 아 - 하 야 - - - 에 - 에 - 이 허 - 요 -

넷째, 유사한 선율이 조금씩 변형·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의 노래에서는 조의 변조현상이 나타난다. 가락의 구성에 있어 반음교차에 의한 조바꿈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악보 11> ‘천지왕본풀이’ 대별왕 소별왕 무가

먼 저난건 대-별 왕 말 제난-걸 랑 소-별-왕 - ----

아 버- -지 천지- -왕 상 봉--- 허 니 - ---

대별 왕은 이 상- 법 소별-왕 은 저 상- 법 마련-허 라

Ⅲ.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통합적 국악교육 적용 방안

전통굿이란 자연·신·사회·인간 등이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민간 신앙인 무속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 수단이다.¹⁴⁾

이러한 굿은 음악(巫歌)과 춤(巫舞)을 중심으로 하여 연극적 요소와 미술적 요소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구성된다. 즉, 굿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연희되는 악가무(樂歌舞) 형태의 종합예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굿을 학교 현장에서 감상교육으로 지도할 때는 구성요소의 독립적인 수업 보다는 여러 분야와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업이 효과적이다.

통합교과적 접근에 대한 모색은 20세기 초부터 논의 되어 왔다. 교육학 영역에서는 통합을 위한 공통요소의 공유 방법이나 통합의 정도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의 실행 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안과 연구들이 있어 왔다. 통합을 모색하는데 있어서의 초점은 통합의 정도와 영역 간의 연계 방법이 중요하다.¹⁵⁾

14) 이해현, “퍼포먼스개념을 통해서 본 연행으로서의 굿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5-16쪽.

15) 정진원, “통합교과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음악지도에서의 의미 탐색,” 『음악교육연구』 34 (2008), 144쪽.

음악수업에서의 굿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음악활동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굿음악 수업이며, 둘째는 미술, 연극, 무용 등의 예술적 구성요소와의 통합적 접근에 따른 수업이다. 셋째로는 음악과 타 영역(국어, 역사, 지리 등) 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굿음악 중심의 국악수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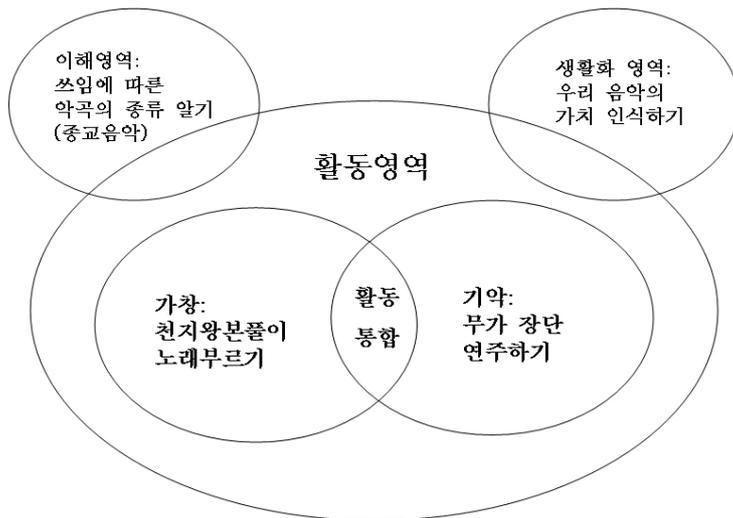
이에 본 장에서는 위에 제시된 굿음악 통합수업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한 칠머리당 영등굿의 실제적인 음악 교과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악 활동 영역의 통합적 접근 방법

음악교육에서의 활동 영역은 크게 가창·기악·창작·감상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국악교육에서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악 관련 지도 내용은 대부분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수업에 따라 독립적인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음악적 활동 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제시될 교수방안은 칠머리당굿에 나오는 무가 ‘천지왕본풀이’를 제재곡으로 하는 가창영역과 기악영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방법이다. 이는 음악교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 간의 통합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칠머리당굿 수업에서의 음악 활동 통합의 예 (가창+기악)



그럼 칠머리 영등굿을 활용한 활동 영역의 통합지도의 실제적인 지도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시 활동의 주요 학습내용은 제주 무가의 특징 이해하기와 노래하며 장단치기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지도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며, 수업은 2차시로 구성하였다.

■ 단 원: 제주 칠머리당굿 중 ‘천지왕본풀이’

■ 학습목표

- 가. 감상을 통해 무속음악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나. 듣고 따라 부르기로 ‘천지왕본풀이’ 무가를 노래할 수 있다.
- 다. 연물의 음색 특징을 알고 ‘천지왕본풀이’의 장단을 칠 수 있다.

■ 수업자료

- 악기: 설쇠(대체악기: 팽과리), 대양(대체악기: 징), 북, 장구
- 녹음자료: 제주 칠머리당굿 음원 혹은 영상 자료
- 학습자료: 무가 악기 사진, 장단보

■ 지도내용

차시	주요내용	주요활동
1	· 감상 <제주 칠머리당굿> · 지역전승음악	① <제주 칠머리당굿> 감상하기 ② 무속음악의 특징 알기
2 (본시)	· 제주 무가 · 제주 무악 장단	① 무가 ‘천지왕본풀이’ 듣고 따라 부르기 ② 연물 음색의 특징 알고 무악 장단 치기

■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제재(차시)	천지왕본풀이 (2/2)	활동 주제	제주 무가 노래 부르며 장단 치기
학습자료	팽과리, 북, 징, 장구, 무가 장단보		
통합수업형태	가창+기악 활동의 통합적 음악수업		
학습목표	· 듣고 따라 부르기로 ‘천지왕본풀이’ 무가를 노래할 수 있다. · 연물의 음색 특징을 알고 노래에 맞추어 장단을 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감각적 감지 및 동기유발</p> <p>학습목표확인</p>	<p>◆ <제주 칠머리당굿>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시간에 감상한 <제주 칠머리당굿> 중 무가가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짧게 감상한다. - 무가의 선율을 주의 깊게 살피며 듣는다. · <제주 칠머리당굿>을 본 느낌을 말해본다. - 감상을 통해 알게 된 제주무악의 특징과 느낌을 발표한다. <p>◆ 학습목표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통해 오늘 배울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p>동영상 자료</p> <p>PPT</p>																																										
전개	<p>천지왕본풀이 듣고 부르기</p> <p>제주 무악의 악기(연몰) 탐색하기</p> <p>노래에 어울리는 장단치며 노래 부르기</p>	<p>◆ 무가 듣고 따라 부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가 ‘천지왕본풀이’를 감상한다. - 음반을 통해 전문가가 부른 노래를 듣는다. · 무가에 나오는 가사의 의미와 제주방언(사투리)를 알아본다. - 노랫말 내용과 사투리의 뜻을 이해하며 노래 부른다. · 두 마디씩 부분적으로 듣고 따라 노래해 본다. - 가락의 흐름에 유의하며 두 마디씩 듣고 따라 부른다. <p>◆ 제주 무악 악기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무악에 사용되는 악기(연몰)를 탐색한다. - 사진(혹은 실물악기)을 보며, 악기의 생김새와 소리 나는 원리를 알아본다. · 연몰 악기의 재료와 음색의 특징을 알아본다. - 쇠로 만든 악기는? (설쇠, 대양, 바람) - 가죽으로 만든 악기는? (북, 장구) · 제주 무악에 사용되는 악기편성의 특징을 말해본다. - 선율악기는 없고, 타악기로만 구성되었다. <p>◆ 노래에 어울리는 장단 만들어 연주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를 나누어 노래에 어울리는 장단을 만들어 본다. <p>북</p> <table border="1" data-bbox="667 1451 1190 1507">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설쇠</p> <table border="1" data-bbox="667 1518 1190 1574">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대양</p> <table border="1" data-bbox="667 1585 1190 164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p>장구</p> <table border="1" data-bbox="667 1653 1190 1709"> <tr> <td>①</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td>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한 장단을 악기별로 연주한다. · 장단을 치며 노래를 함께 불러본다. - 북, 설쇠(쟁과리), 대양(장), 장구로 악기를 연주하며, 흥겹게 노래 부른다. 	○		○	○	○	○	○	○	○	○	○		○	○		○	○		○	○	○					○					①			○			○			○			<p>연몰 악기 사진</p> <p>악기별 기본 장단을 제시하여도 좋다.</p> <p>사물 악기로 대체하여 연주한다.</p>
○		○	○	○	○	○	○	○	○																																				
○		○	○		○	○		○	○																																				
○					○																																								
①			○			○			○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정리	내면화 및 차시예고	◆ 학습정리하기 · 제주 무가 ‘천지왕본풀이’를 불러본 소감을 이야기한다. - 자유롭게 소감과 느낌을 발표한다. · 차시예고: ‘서우젯소리’ 배우기	

2. 예술 영역의 통합적 접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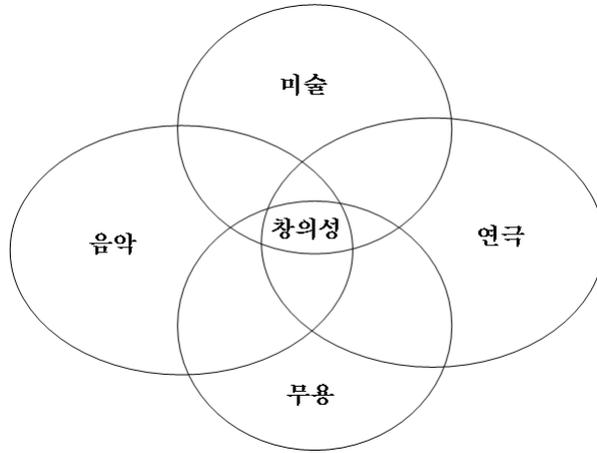
통합적 접근을 이루는 형태에 있어 최근 음악 교육적 효과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예술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예술적 통합 활동이다. 그러나 예술과목, 특히 음악과 기타 교과목과의 통합은 이론적으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의 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많은 음악교사들은 예술 통합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하여 통합수업의 적용을 주저하거나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적 형태로서의 예술의 근원에 대한 이해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전통성과 창조성이라는 예술사이의 고리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술에 대한 이해적 활동은 유·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을 음악·무용·미술 또는 짧은 연극과 같은 예술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인식의 과정을 체험하는데, 이 같은 다양한 예술형태로서의 실천은 예술로서 공유되는 상호적 관계 혹은 공동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적인 예술양식들을 인정하고 또한 각각 요구하는 기술적 방법들을 인정하는 것이다.¹⁶⁾

교육에서 있어 이러한 예술 영역 간의 통합적 접근은 여러 예술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영역을 더욱 존중하게 한다. 또한 예술 영역 간의 통합교육은 학생들의 예술적 창의성과 잠재적인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경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예술 영역간의 통합 활동인 유사한 간학문적인 접근 방식은 <그림 2>와 같은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16) 민경훈,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통합 예술적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30 (2006), 58쪽.

<그림 2> 예술 영역 통합 유형의 예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모든 예술 영역의 종합적인 산물이다. 무속음악인 노래와 악기가 있고(음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사위가 있으며(무용), 심방이 행하는 연희적 요소(드라마)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희에 사용되는 제장(祭場: 굿청)과 제상의 장식품(미술) 등은 훌륭한 조형 예술 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칠머리당굿의 감상교육에 있어 예술영역 간의 통합적 접근은 당굿의 본질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시할 교수방안은 칠머리당 영등굿의 예술 통합적 접근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 실제로 음악과 무용 중심의 예술 통합적 음악수업 지도안이다.

■ 단 원: 제주 칠머리당굿 영감놀이 중 ‘서우젓소리’

■ 학습목표

- 가. 떼기고 받으며 ‘서우젓소리’를 노래할 수 있다.
- 나. ‘서우젓소리’에 맞추어 굿거리장단을 칠 수 있다.
- 다. 노래에 어울리는 춤동작을 만들 수 있다.

■ 수업자료

- 악기: 장구
- 녹음자료: 서우젓소리 음원

· 학습자료: 장구, CD플레이어

■ 지도내용

차시	주요내용	주요활동
1	· 서우젯소리 · 메기고 받기	① 서우젯소리 음원 감상하기 ②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2 (본시)	· 굿거리장단 · 음악과 춤	① 굿거리장단 치며 서우젯소리 노래하기 ② 서우젯소리에 어울리는 춤동작 하기

■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제재(차시)	서우젯소리 (2/2)	활동 주제	노래에 어울리는 춤동작 하기
학습자료	장구, CD플레이어		
통합수업형태	음악+무용 활동의 예술통합적 음악수업		
학습목표	· ‘서우젯소리’에 맞추어 굿거리장단을 칠 수 있다. · 노래에 어울리는 춤사위 동작을 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감각적 감지	◆ ‘서우젯소리’ 노래부르기 · 지난시간에 배운 ‘서우젯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불러 본다. · 교사의 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장구								
	학습목표확인	◆ 학습목표 확인하기 · PPT를 통해 오늘 배울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PPT								
전개	서우젯소리 장단구조알기	◆ ‘서우젯소리’의 장단 구조 알기 · ‘서우젯소리’에 연주되는 장단의 구조를 알아본다. · 장단보를 보며 장단의 구조를 말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20px;"> </td> </tr> </table> </div>	○		○		○		○		장단의 빠르기과 주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		○		○				
서우젯소리 장단익히기	◆ 굿거리장단 익히기 · ‘서우젯소리’의 굿거리장단을 구음으로 노래하고 장구로 연주해 본다. · 구음을 읽고, 장구로 굿거리장단을 친다. <기본박 익히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20px;"> </td> </tr> </table> </div>	○		○		○		○		장구 단계별로 굿거리 장단을 지도한다	
○		○		○		○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노래에 어울리는 춤동작 창작하기	<p><기본장단 익히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 ○ ○ ○ ○ </div> <p><변형장단 익히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 ○ ○ ○ ○ ○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우젯소리’에 맞추어 굿거리장단을 연주해 본다. - 굿거리장단의 기본장단과 변형장단을 섞어서 장단을 연주한다. ◆ 노래에 어울리는 춤사위 동작 만들기 ·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간단한 신체표현을 해본다. - 장단에 맞추어 걷기, 손동작하기(감기, 뒤집기, 쓸기) 등의 기본 동작을 한다. · 노래에 어울리는 춤사위 동작을 만들어 본다. - 모듈별로 노래에 어울리는 춤사위 동작을 만든다. · 모듈별로 만든 춤동작을 발표해 본다. - 서우젯소리 노래에 맞추어 창작한 춤사위를 발표한다. 	음악에 맞추어 다양한 동작을 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내면화 및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하기 · ‘서우젯소리’에 춤동작 창작활동의 소감을 이야기한다. - 자유롭게 소감과 느낌을 발표한다. · 차시예고: ‘천지왕본풀이’ 무가와 설화이야기 	

3. 타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 방법

교과의 발생은 생활에서 발생되었고, 그 생활경험을 분화하고 체계화하여 분야별로 사실, 정보, 개념, 원리 등을 그 탐구방식에 따라 정리해 놓는 것을 ‘교과’라고 할 수 있다.¹⁷⁾ 교과 간의 통합은 서로 다른 교과 내용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또한 교과의 경계를 허물고 학습내용의 재조직을 통해 학습경험의 통합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과 간의 연계 형태는 통합의 정도에 따라 합산적 통합, 기여적 통합, 융합적 통합, 기능적 통합으로 분류한다.

첫째로, 합산적 통합은 별개의 과목을 병렬적으로 합쳐놓은 형태의 통합으로 교과 간 연계성을 모색하여 가르치려는 방법의 통합을 말한다.

둘째로, 기여적 통합은 상관적 통합이라고도 하며,¹⁸⁾ 합산적 통합보다는 두 개 혹은

17) 김재복,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1985), 96쪽.

그 이상의 교과 사이에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기여적 통합도 합산적 통합처럼 각 교과목 하나하나가 독립된 것으로 취급한다.

셋째로, 융합적 통합은 공통적인 문제, 상호 관심영역에 기초를 두고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으로 질적인 구조의 통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 교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역사 등의 교과 내용과 방법 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의 통합이다.

넷째로, 기능적 통합이란 교과를 묶어 하나의 학습 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흥미와 필요 중심의 통합을 말한다. 여기는 실생활의 경험을 무엇보다 중시 여기며, 직접적인 생활경험에서의 학습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활동에서 ‘설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도하려면, ‘설날의 의미알기’, ‘설날의 먹는 음식이야기’, ‘설날 놀이하기’, ‘설날 노래 부르기’, ‘설날에 대한 추억 글쓰기’ 등의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는 국어, 사회, 미술, 음악, 체육, 과학 등의 기존 교과내용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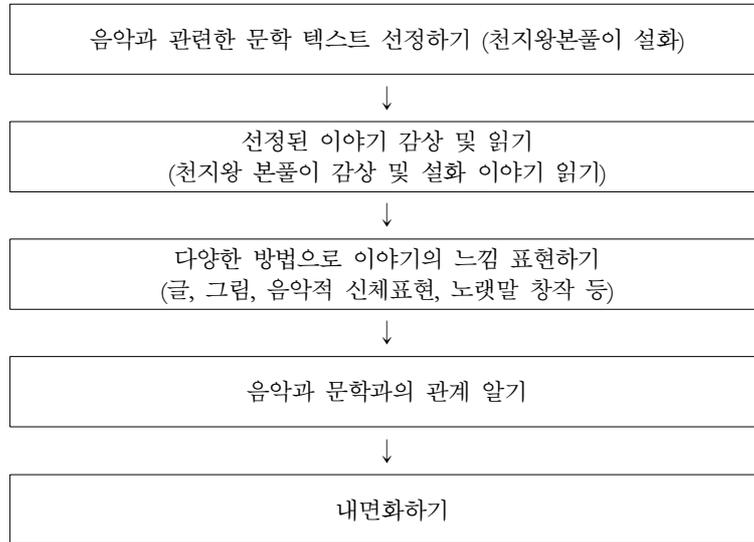
타 교과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칠머리당 영등굿의 감상수업은 위에 제시된 통합적 유형을 수업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음악 감상수업은 음악과 언어학습을 통합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의 언어학습이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학생들은 음악 감상을 통해 의사소통의 모든 양식을 개발할 수 있다.¹⁹⁾

이번에 제시된 교수방안은 칠머리당굿의 타 교과 통합적 접근에 의한 예로 음악을 중심으로 국어 교과 간 이루어지는 범교과적 통합 활동의 실제이며, 수업 과정의 흐름은 아래 제시된 <그림 3>과 같다.

18) 김재복,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98쪽

19) 최미영,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언어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의 탐색,” 『음악교육공학』 10 (2010), 47쪽.

<그림 3> 음악과 국어 교과와 칠머리당굿 통합 감상수업 과정



■ 단 원: 제주 칠머리당굿 ‘천지왕본풀이’ 감상

■ 학습목표

- 가.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로 가사를 창작하여 노래할 수 있다.
- 나.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수업자료

- 녹음자료: 제주 칠머리당굿 ‘천지왕본풀이’ 영상자료
- 학습자료: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자료, 활동지

■ 지도내용

차시	통합교과	주요내용	주요활동
1 (본시)	음악+국어	설화이야기와 음악	①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듣고 다양하게 표현하기 ②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창작하여 노래 부르기 ③ 민족문화의 우수성 알고 아끼는 마음 갖기
2	음악+사회	민간 신앙과 음악	① 무가 ‘천지왕본풀이’ 감상하기 ② 민간 신앙과 음악의 관계 이해하기 ③ ‘천지왕본풀이’의 특징적인 가락 노래 부르기

■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제재(차시)	천지왕본풀이 (1/2)	활동 주제	무가 ‘천지왕본풀이’와 설화
학습자료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자료, 활동지		
통합수업형태	타 교과와의 통합활동 (음악+국어)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내용을 가사로 창작하여 노래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시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왕본풀이’ 노래부르기 · 지난시간에 감상 ‘천지왕본풀이’의 주선율을 노래 불러본다. - 교사의 장구장단에 맞추어 ‘천지왕본풀이’ 대별왕 소별왕 노래를 부른다. 	PPT
	학습목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확인하기 · PPT를 통해 오늘 배울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전개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듣고 생각 나누기 · ‘천지왕본풀이’의 무기를 감상해 본다. - 음원 혹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천지왕본풀이’를 짧게 감상한다. · 읽기 자료를 통해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감상한다. - 설화 내용을 유의하며 이야기를 들어본다. ·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다. -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하늘과 땅이 벌어져서 생겨났다.) - 천지왕은 어떤 일을 했는가? (총명부인과 결혼을 했다. 수명장자에게 벌을 주었다.) - 수명장자는 어떤 일을 하여 벌을 받았는가?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등) 	감상 자료 설화 이야기 그림자료
	이야기 느낌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의 느낌 표현하기 ·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말해본다. - 각자 생각하는 인상적인 부분을 발표한다. ·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본다. - 자신의 느낌이나 인문의 성격을 편지글, 동시, 만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자유롭게 이야기의 느낌을 상상하도록 지도한다.
	이야기 내용의 가사창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노래 만들기 · 민요 ‘아리랑’ 선율을 천지왕 이야기 내용으로 가사를 개사하여 불러본다. (민요곡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모듈별로 천지왕 이야기의 내용을 짧게 개사하여 ‘아리랑’ 선율에 노랫말을 만들어본다. 	이야기와 음악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창작한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정리	내면화 및 평가	◆ 내면화 및 평가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의 가사 창작 노래를 발표한다. - 모듈별로 만든 노래를 불러본다. · 모듈별 발표한 노래를 상호 평가한다. - 발표하는 노래를 듣고 잘된 점을 칭찬한다. ·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 인정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활용한 음악수업의 적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교육계에는 전통예술과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학교 교육에서의 활용은 그 어느 때 보다 큰 의미를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칠머리당 영등굿을 활용한 학교 음악수업의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제적인 교수방안은 음악 영역간의 통합적 음악활동, 예술 영역 간의 통합적 음악활동, 타 교과와의 통합적 음악활동의 적용 실재를 살펴보았다. 그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무속음악 감상교육의 시시점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통예술인 무속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자기 지역 음악문화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제주 무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음악문화에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이에 따른 전통음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음악과 생활과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쓰임과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생활 속의 존재하는 음악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넷째, 음악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제주 무악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음악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과 창의성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무속 음악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참고 자료가 많지 않아 연구의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여 본다.

첫째, 무속 음악에 대한 음악적 연구와 다양한 교육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무속 음악은 지방에 따라 거리의 순서, 악기편성, 장단, 선법 등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아직까지는 유명한 무악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무악에 관한 음악학적 연구와 함께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무속음악의 감상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무속음악 감상교육에 있어 음원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를 위해 감상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조사한 결과 많은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무속음악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질의 감상용 음원자료와 함께 중심 거리의 연희모습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국악 감상교육을 위한 무악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화 연구와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통합 교육적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 무속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우리의 소중한 음악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음악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 제 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무속음악, 통합적 접근, 음악과 교수-학습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Shamanistic music, Integrated approach,

Music teaching-learning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서울: 민속원, 2008.

권덕원 · 황병훈 · 송정희 · 박주만. 『국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9.

김재복.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1985.

- 김지수. “제주 칠머리당굿의 형식과 춤사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형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무가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민경훈.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통합 예술적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30 (2006), 53-76쪽.
- 이보형. “전통음악의 리듬 분석 방법론.” 『정신문화연구』 66 (1997), 103-107쪽.
- 이혜현. “퍼포먼스개념을 통해서 본 연행으로서의 굿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 행.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8. 제주목 풍속조.
- 정진원. “통합교과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음악지도에서의 의미 탐색.” 『음악교육연구』 34 (2008), 139-169쪽.
-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제주: 제주도, 1998.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서울: 예술, 1992.
- _____.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음악적 특징.” 『제주도 칠머리당굿』 한국음악 제31집, 서울: 국립국악원, 2000.
- _____. 『한국음악 제31집: 제주도 칠머리당굿』. 서울: 국립국악원, 2000.
- 최미영.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음악과 언어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의 탐색.” 『음악교육공학』 10 (2010), 41-56쪽.
- 칠머리당굿 보존회. 『제23회 제주 칠머리당굿 공개 발표회 - 영등송별대제일』. 2003.

<음반>

- 국립국악원. 『한국의 굿 no. 4: 제주 칠머리당굿』. 국악춘추사, 서울음반, 2000.

Abstract

Application Methods of the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by Integrated Approach

Park, Joo-M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ntegrated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could be applied in music education at schools based o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one of the most valuable cultural art recognized by the world. The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is our cultural heritage register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n September 2009. As one of the Yeongdeungguts practiced from time out of mind,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is significant in its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as a shamanistic ritual, in which sacrificial rites are held for Yeongdeung-shin (god) and Daewang (sea god). As people have recently tended to properly understand traditional and regional cultures in the educational circle, they have been greatly interested in the importance of aesthetic value recognition for our cultural heritage and its subsequent cultural art educ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ed hands-on teaching-learning methods of music classes at schools using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As for its teaching methods, the study suggested the integrated approach in accordance with the domains of singing, instrumental music, creation and appreciation of music as integrated music activities, the integrated approach among artistic domains such as fine arts, dancing and drama and the same approach with other subjects. It is hoped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study will let students recognize the values of traditional art, the cultural identity and an interest in their regional music culture based on the proper understanding of Jeju dance and music. Besides,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with music and their daily lives through class and improve their musical potential and creativity.